번뇌가 바로 大道… 분명히 깨달아 중생 위해 살아야





> “미혹에 빠진 사람은 대상 그 자체가 空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깨친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거스르거나 쫓을 것이 없다”

대연 거사는 승용차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보았다. 아침 8시 25분이었다. 새벽예불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들의 일상으로 볼 때는 이른 시각은 아니었다. 봉갑사 경내 풍경은 산길 중간에서 볼 때와 아주 달랐다. 비구름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 앞에 이르자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법당과 요사채, 산신각이 연극무대처럼 가깝게 드러났다. 비구름은 산 정상으로 물러나 있었다. 법당 위쪽 산 9부 능선쯤에 있는 관세음보살상은 비구름을 타고 곧 날아갈 것처럼 보였다.

동자승들이 주차장 쪽에서 농구를 하다가 다가왔다. 공을 들고 온 동자승이 콩나물처럼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거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주지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동자승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앞서 걸으며 대연 거사를 요사채로 안내했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동자승이 가리키는 요사채로 가지 않고 법당으로 먼저 갔다. 불전에 삼배를 하고 다시 보각(寶閣) 앞으로 가 합장했다. 각안 스님의 말대로 네 마리 사자가 떠받든 법상(法床) 형상의 보각에는 혜암 스님의 사리가 봉안돼 있었다. 불빛을 머금은 사리는 돋보기 속에서 더욱 영롱했다.

황금빛 사리 4과, 흑진주빛 사리 1과, 흰 골편 2과가 업경대 너머에서 시선을 끌었다. 대연 거사는 이마를 마룻바닥에 대고 있는 순간 머릿속이 홀연히 헹궈지는 느낌을 받았다. 삼배를 하고 일어서 보각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자 이번에는 두 눈에 낀 헛것들이 떨어져나가는 듯했다. 찬물이 스친 듯 두 눈이 밝아졌다.

대연 거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합장했다. 팔작지붕의 원당암처럼 생긴 보각의 모양 때문에 대연 거사는 살아생전의 혜암 스님을 다시 친견하는 듯했다. 혜암 스님이 환생하여 원당암 법석에 앉아 사자후를 토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고개를 흔들고 보니 스님의 사리는 몇 점 침묵으로 소소영영(昭昭靈靈)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환청에 사로잡혔던 것은 아니었다. 공방에서 테이프로 늘 들었던 ‘공부하다 죽어라’는 혜암 스님의 법문을 좀 전에 떠올렸던 것 같기도 했다.

“고요한 빛이 온 누리를 비추니 범부와 성인이 모두 한 집안일세.

한 생각 내지 않으면 나타나지만 분별을 일으키면 가려지네.

번뇌를 끊으려면 병을 더하고 보리(菩提)를 구할수록 사견만 일어나네.

모든 인연 부딪쳐도 걸림 없으면 열반이니 생사가 모두 다 헛것일세.

분명히 깨달아서 미래 겁이 다하도록 일체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화두를 참구해 바로 눈을 떠야지 그 전에는 맹인이 굿하는 식이 돼서 저도 죽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된다.

도를 닦는다 해도 참된 도를 닦을 것도 없고 법을 묻는다 해도 법이란 물을 것도 없다. 미혹에 빠진 사람은 대상 그 자체가 공(空)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깨친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거스르거나 쫓을 것이 없다. 팔만사천법문도 그 깊은 뜻이 우리들의 작은 가슴속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본심을 분명히 깨달아 함부로 지방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널리 배우고 많이 듣는 일도 없으며 재능이 뛰어날 필요도 없다. 나는 달이 크고 작음을 구별할 줄 모르며 윤년이 돌아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번뇌 바로 이것이 대도(大道)이다.

깨끗한 꽃은 바로 진흙 속에서 핀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하더라도 함께 더불어 논의하는 일은 그쳐버린다. 아침 일찍 죽을 훌쩍 마셔 배를 채우고 낮에 한 차례의 식사를 할 뿐이다. 오늘도 손을 놓고 빈둥빈둥 내일도 빈둥빈둥 손을 놓는다. 내 마음속은 확실히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하튼 바보나 멍청이처럼 살아갈 뿐이다.

대저 공부에 장애되는 것은 화두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큰 병이며, 아는 것이 큰 병이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 큰 병통이니라. 다만 화두를 의심하는 것 말고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두지 말지어다. 화두에 의심을 얻었을지라도 지견(知見)에 빠지면 병이 된다.

고요함이 극한즉 문득 깨치고 깨끗함이 극한즉 광명이 통하나니 기운이 엄숙하고 바람이 맑아 동정(動靜) 경계가 맑은 하늘 같을 때가 첫째 바른 길이니라.

이때에 더욱 화두를 잘 잡아 나가면 맑은 가을물 같으며 옛 사당의 향로와 같아서 적적성성해 마음 행하는 길이 끊어질 때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화두의 의단(疑團)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점점 승하면 티끌이 녹아지고 광명이 장차 발현할 것이니 이것이 둘째 바른 길이니라.

만일 이것에서 아는 생각을 내면 한 결 같이 잘되는 것이 끊어지리니 크게 해로움이 되느니라. 이 허물이 없이 공부를 지어 앞으로 나가면 동정이 한 결 같고 자나 깨나 성성해 단지 화두만 나타나는 것이 비유컨대 물속에 비친 달이 파도에 흔들려도 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 중심이 고요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천만 경계가 산란해도 움직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셋째 바른 길이니, 이와 같이 될 때 크게 깨칠 때가 가까우리라.”

물론 대연 거사 자신이 화두를 들고 참선 공부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참선공부를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 혜암 스님 법문을 듣곤 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대연 거사는 도자기 만드는 것을 수행으로 생각해 ‘공부하다 죽어라’를 ‘도자기를 만들다 죽어라’로 받아들였다. 누구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성취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런 각오로 도자기를 굽는 가운데 혜암 스님이 깨달음의 경험을 법문하는 바와 같이 맑은 하늘처럼 시원하고, 광명이 발해 눈부시고, 파도에 흩어지지 않는 달처럼 영원히 그 가치를 사랑받는 명품의 도자기를 하나 남긴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대연 거사는 법당 밖에서 동자승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다.

“거사님, 스님께서 요사채에 와 계십니다.”

각안 스님이 문화원에서 돌아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대연 거사는 보각을 향해서 합장 반배를 하고 법당을 나와 요사채로 갔다.

“스님, 거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이구,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아침 일찍 오셨습니까.”

“혜암 큰스님을 뵙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솔명 동자는 어서 가 과일 좀 내오너라.”

방으로 들어간 대연 거사는 스님과 맞절을 했다. 방 벽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네 장이나 붙어 있었다. 봉갑사를 기준 삼아 곳곳에 붉은 색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있었다. 해마다 절의 대중과 함께 순례한 기도처를 그렇게 표시한 것 같기도 했다.

“보각 안의 큰스님께서 무어라 하시던가요.”

“저더러 도자기를 만들다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하하.”

각안 스님이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더니 차를 우려 찻잔에 따랐다.

“도자기 만드는 삼매에 빠지신 것을 보니 이제 출가는 접으신 것 같습니다.”

“큰스님 2주기 때 원당암에서 스님을 뵌 덕분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지 적극 만류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출가할 마음뿐이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숙고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노스님을 뵌 인연이 있습니다.”

“원당암에서 노스님을 뵀단 말입니까.”

“스님과 헤어지고 난 후 원당암 가는 다리 위에서 뵀습니다. 저는 해인사 일주문 쪽으로 내려가고 노스님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출가 의지를 꺾고 말았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노스님과 약속입니다.”

“하하하. 말씀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솔명 동자가 방문을 연 채 쟁반을 들고 왔다. 밖은 다시 잿빛 하늘로 변했는지 어두웠다. 빗방울들이 싸락눈으로 변해 날벌레처럼 희끗거렸다.

“눈이 쌓일 날씨는 아닙니다. 포근해서 도로가 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보각이 낯익습니다. 원당암 미소굴에서 보았던 것도 같고.”

“맞습니다. 해인사 비림(碑林)에 큰스님의 사리탑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저 보각에다 사리를 모시고 있었지요. 저 보각은 원래 큰스님의 토굴이었던 미소굴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각을 보는 순간 낯설지 않았습니다. 원당암을 축소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구요.”

“보각은 제가 원당암에서 살 때 설계했는데, 법상에 앉아 법문하는 큰스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형상화한 것입니다. 내일이 큰스님 7주기인데 해인사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큰스님을 뵌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잠시 후 해인사로 갑니다. 여기서 해인사까지는 3시간 거리이니 아무 때나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스님, 봉갑사 경내를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연 거사가 사과 한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서려 하자, 각안 스님도 찻잔을 서둘러 설거지했다. 대연 거사는 허공에서 춤을 추는 싸락눈을 서설이라고 여겼다. 혜암 스님의 사리가 봉갑사에 봉안돼 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행운처럼 느껴졌다. 출가해 혜암 스님처럼 도인이 되고 싶었는데, 지척의 거리에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었다. 법당 위쪽 금강저를 치켜든 동진보안보살상이 선 곳에 이르자, 싸락눈은 바람을 타고 날렸다. 벙거지를 쓴 각안 스님이 말했다.

“이왕 나오셨으니 저 위 적멸보궁까지 가시지요.”

보궁은 신축할 108법당과 지장전 위쪽에 있어 가파른 산길을 걸어 올라야 했다. 걸어 오르는 동안 싸락눈이 금세 함박눈으로 변했다. 변화무쌍한 날씨였다. 함박눈은 허공 가득히 나비처럼 흩날리다가 땅에 떨어져서는 곧바로 사라졌다. 드디어 사면불(四面佛)이 봉안된 보궁에 오르니 봉황 모양의 천봉산 산자락들이 한눈에 들었다. <계속>

